

롯데케미칼, 수소사업 4.4조 투자... “국내 수요 30% 공급”

(2030년까지)

‘2030 수소성장 로드맵’

매출 3조, 영업이익 10% 계획
대량 공급망 등 핵심역량 기반 실현
2024년 울산 연료전지발전소 운영

롯데케미칼이 2030년 탄소중립성장 달성과 함께 국내 수소 수요의 30%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친환경 수소 성장 로드맵 ‘Every Step for H2’를 발표했다.

롯데케미칼은 13일 오후 2030년까지 약 4조 400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약 3조 원의 매출과 10% 수준의 영업이익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롯데 화학BU는 기후 위기 대응, 그린 생태계 조성, 자원순환, 친환경 사업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ESG경영전략 및 친환경목표인 ‘Green Promise 2030’을 선언했다.

이번에 발표한 수소 로드맵은 2030년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탄소중립성장에 이어 2040년 탄소중립을 이뤄내고, 환경영향물질 저감과 함께 친환경사업매출을 증대시키겠다는 수소사업 목표와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대규모 소비처 ▲대량 공급망 ▲친환경 기술 등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수소 사업 로드맵을 실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롯데그룹의 물류 및 유통 인프라와 사업장 내 연료전지 및 터빈을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소비처와 수소 충전소 및 발전소에 대량으로 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보유량을 갖고 있다.

수소탱크, 탄소포집 기술 및 그린암모니아 열분해 등의 친환경 기술 역량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

러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청정 수소 생산 ▲수소 활용 사업 ▲수소 사업 기술 발전을 주도할 계획이다.

먼저 청정수소 생산을 선도하며 2030년까지 60만 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 중인 부생수소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탄소포집 기술을 활용해 블루수소 16만 톤을 생산한다. 2030년 그린수소 밸류체인을 완성함으로써 블루수소(16만 톤)와 그린수소(44만 톤)가 혼합된 60만톤 규모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예정이다.

국내 수소 활용 사업도 견인한다. 2024년에는 울산 지역 연료전지 발전소 운영을 시작한다. 2025년까지 액체 수소 충전소 50개를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2030년에는 복합충전소를 200개까지 확대해 국내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형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내 연료전지 발전소 및 수소터빈 발전기를 도입해 탄소 저감된

전력으로 환경 친화적인 공장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보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수소사업 기술 발전도 주도할 예정이다. 수소 저장용 고압 탱크 개발을 통해 2025년 10만 개의 수소탱크를 양산하고, 30년에는 50만 개로 확대 생산해 수소 승용차 및 상용차에 적용을 목표로 한다. CCU-CCS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동시에 암모니아 열분해 및 그린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황진구 대표는 “선제투자의 관점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기에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그린수소 시대가 도래하면 생산된 그린수소를 기구축된 공급망에 투입해 수요자들이 탄소 걱정 없는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각 활용 부문에 적시에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셀트리온 ‘렉키로나’ 코로나19 중증환자 70% 감소 효능입증

글로벌 임상3상 결과 구두발표
경증·중등증 환자 1315명 대상
증상개선시간 최대 4.9일 단축

셀트리온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중증환자 비율이 7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은 지난 12일 제31차 유럽 임상미생물학 및 감염질환학회(ECCM ID)에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구두 발표했다고 밝혔다.

ECCMID는 감염병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회 중 하나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회에서 렉키로나의 글로벌 임상 3상 연구자로 참여한 루마니아 캐롤 다빌라 의학·약학 대학 오아나 산두레스쿠 박사가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환자 총 1,3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8일 간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대규모로 진행된 임상 3상에선 입원 및 산소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악화하거나 사망한 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중증환자 악화율’과 ‘임상적 증상 개선 시간’을 평가지표로 지정해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렉키로나를 투여한 고위험군 환자군에선 중증환자 발생률이 위

약군 대비 72%, 전체 환자에선 70% 감소했다.

임상적 증상 개선 시간 역시 고위험군 환자에선 위약군 대비 4.7일 이상, 전체 환자에선 4.9일이 단축되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렉키로나 치료군의 체내바이러스 농도가 렉키로나 투여 후 7일 기준으로 위약군 대비 현저히 감소했으며, 안전성 평가 분석에서도 대다수 이상 반응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안전성 측면에서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유럽의 권위있는 국제 학회서 구두로 발표하며 렉키로나의 안전성과



지난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31차 유럽 임상미생물학 및 감염질환학회(ECCMID)’에서 렉키로나의 글로벌 임상 3상 연구자로 참여한 루마니아 캐롤 다빌라 의학·약학 대학 오아나 산두레스쿠 박사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효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허가에 속도를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온·오프라인 창업

↘ **창업비용 99만원**

200여개 **홍삼브랜드**
+ 2만여개 **인기상품**

복지물과 웹카다로그를
통해 남녀누구나 평생 판매 수익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업

25년 역사 브레인TV 방송국 소유 핫터그룹

(주)핫터라이프 T. 070-7204-4515

“노동계·공익위, 향후 부작용 책임져야”

» 1면 ‘벼랑끝 현실외면’서 계속

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타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더 이상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사용자위원 전원은 유감을 표명,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향후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유감·분노 금할 수 없어”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을 통해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향후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할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 업계는 더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 동결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기대를 밝혀왔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폭에 심각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